

젊은이 발언대

축산업계에 대한 나의 바람



최 석 호
(서울대 농대 축산학과 4年)

젊은이들의 날카롭고 신선한 눈으로 보는 업계와 그 문제점은 어떠한가? 본지에서는 4월호부터 “젊은이의 발언대”란을 신설하여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번호는 그 첫번째로서 최석호군의 눈에 비친 업계와 그 비전을 들어본다.

‘농자 천하지 대본야’ (農者 天下之 大本也)라는 옛말이 있다. 말그대로 농(農)을 다루는 사람이나 그 일 자체는 성스러운 뜻임에는 틀림이 없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역으로만 그치던 가축 사육이 역사의 계속적인 변동기에 즈음하여 그 형태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과 마디에는 반드시 지나간 한 시대를 마무리짓고 검토해 보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과거에는 농업국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오늘날 전체인구의 반은 농업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게 되어 농업대 비농업인구의 비가 거의 같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현상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있는 변화이며, 이에따른 이농현상,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농촌의 사회 및 생활구조는 물론 인간 관계를 변질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혁에 직면하여 하나의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 생활의 양상을 달리 하게되는 즈음, 크게는 농대쟁으로서 작게는 축산학도로서, 배우

는 입장에서 원고 청탁을 받잡고 미래 지향적인 강한역설을 해야한다는 명제 아래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폭로하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러울 따름이다. 축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작은 의미에서의 기업에 대한 바람이라기보다 깊은 지식이 없는 바, 일반적인 축산에 관련된 전 분야를 가볍게 다루는 정도로 그칠까한다. 그리고, 아직 아는 것이 없는 학생으로서 구태의연한 문제성과 대책이라면 외람되지만 학생으로서 가벼운 소견이나마 제시해 볼까한다.

짧은 민주정치의 도입과 자본주의가 성숙한 단계에 이른 이때에 과학문물의 수입과 사회적인 생활 향상과 안정 및 경제 발전에 따른 식생활 개선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피부로 느끼게 까지 되었다. 단순한 가축의 사육 문제에서 많은 수요자를 위해 보다 능률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조직화된 협동적 생산실체(生産實體)로서 성격을 가지는 ‘기업(fim)’이라는 큰 의미에서의 가축의 사양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소득의 증가에 따른 축산물 소비의 증가는 서구유럽의 여러나라

의 경우를 보더라도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필연적이라는 '참'의 명제는 소비증가추세에 따른 적정공급문제와 가격시세라는 경제요인의 대책적인 방법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새 매스컴에서 여론화되는 축산불황에 대한 파급효과와 원인 규명과 대책론의 당위적인 역설은 있지만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예비대책, 최소한의 불황피해 극소화 정책등 근본배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냉철한 먼 안목의 직시가 미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대의 복잡화된 조직에 비추어 볼 때 축산업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대외적인 73年度와 78年度의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같은 부존자원의 무기화와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동향이나 외국의 정책적인 종모우 종돈 종계등의 해외유출 금지와 같은 피치못할 사정은 있다.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감안하더라도 '필요속의 당위'와 '같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도 계속 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우선, 축산업과 필연적으로 관련된 축산정책과 경영에 대해 알아보면 현재의 축산업은 이론적, 실제적 경제요인과의 결합, 교통수단 즉 수송문제, 보관시설과 시장의 유통구조, 물가안정, 진보된 육종연구와 사양관리 기술의 도입, 국내외의 시장개척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분야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추세의 전망과 단순한 해결방안과 같은 경솔한 판단이나 결론은 위험한 것이다. 이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기업적인 축산경영,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축산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수요 공급의 적정수준의 한계를 벗어난 양돈업계의 연례적인 pig cycle 과 같은 심화된 불황과 극히 단순한 경제지식의 미비와 외면에서 초래한 최근의 양계업계의 침체는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해보려던

무분별한 소수의 축산인들이 자초했던 파멸인 것이다. 소비와 생산면에 치우친 나머지 결과를 외면한 당국의 축산정책과 현실의 추세를 무시하고 농민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안녕과 영리에 어두웠던 소수의 재벌 기업과 중간층관공의 권력과 통제의 시스템에 의한 하향적인 정책수행 역시 고려해 볼 문제인 것이다. 옛부터 성군이란 백성의 형편을 익히 알고있는 왕을 일컫는 것이다. 예로부터 의식주의 인간의 근본문제 중에서 식(食)을 무시해오던 계급 관료주의 정신과 보수적인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 추세가 문명의 과학화에 입각하여 2차산업과 3차산업으로만 지향하려 식생활 개선 방안등 근본적인 1차산업을 소홀히 하는 바가 없어야겠다. 즉, 적극적인 농업정책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축산정책의 시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경제이론만 따지는, 비근한 예를들면, 이른바 DRC (국내 자원생산비, Domestic Resource Cost) 로 표시되는 비교생산비설의 이론에 있어 국내 생산비가 외국의 생산비와 선박 운임까지를 포함한 수입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입하려는 비교우위성의 척도를 유독 농업및 축산물의 생산비에만 적용하여 바야흐로 농축산물의 수입 자유화의 신평을 고조시킨 결과를 이루었는데 각국의 농축산물의 수출 수입이 식량의 무기화같은 만일의 정치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상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데, 이것은 식민지하의 강대국의 생산업체에서만 적용되었던 단순한 경제이론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정책의 소홀함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있는 농민을 위한 기구가 진실로 농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겠고 농민의 입김을 반영하고 여론화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축산인 스스로가 축산업계의 의견을 통합 할 수 있는 실질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고 소수군니의 영농 자세에



서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대기업의 기업경영자의 자세로서, 자체의 존속을 자기목적으로 하는 기초사회에서 조직적 영농을 할수 있는 커다란 업계의 구성체로서 탈바꿈하여 상호협동정신을 가지는 것이 보다 나은 사양관리 기술 도입과 지식있는 축산경영, 대량생산에 따른 기구와 시설물의 공동구입과 판매 교통수송 보관의 기계화와 과학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하나의 목표아래 기술적인 경쟁을 경주할 수 있는 참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강력하고 과감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시장이나 해외시장의 정확한 파악과 과학적인 조사아래 배합사료의 수급문제도 역시 재검토 하여야 한다. 상대적인 가격의 저렴으로 해외에서 보관시설과 대책없이 무조건 수입하여 옥의 방치한 곡물사료의 부패로 큰 손실을 가져왔던 예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 활용과 정책적인 실질적인 보조의 기반하에 연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내의 생산단체와 실수요자단체의 상호협리적인 기동성있는 사료의 수요량 변동 상황의 관측과 실행이 필요하며 기업내의 경영 합리화에 입각한 사양관리와 시설의 현대화와 사료 공장의 시설근대화에 따른 전문적인 컴퓨터 작동기술인력의 확보와 사일로, 사료분석 설비, 양질의 사료생산을 위한 연구실험기관이 시급한 것 같다. '비산 비야'라는 말도 있듯이 국내 면적의 70%를 점유하는 산간 야지 개발을 통한 수익성높은 효율적인 초지조성을 하여 강단에서 교양축산으로만 그치는 정예작물이나 목초등의 연구와 우수한 종자개량을 시도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축산장려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벼짚등의 저질 조사료의 이용면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와

기업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요구되어야 한다. 뜻있는 축산연구가 실험실 내에서 그치지 않도록 교육제와 축산업계 사이에 산학협동(産學協同)이 필요하다. 즉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명목적이고 학점을 따기위한 업계의 견학과 실습을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목표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 학원내에 직접적인 위탁연구생이 되도록 기회를 넓여주고 농민을 위한 강좌가 교수 축산학도 기업 경영자들에 의한 학외야간활동과 같은 현실적인 기구가 될 수 있게 개설 운영하는 방편도 먼 안목을 내다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축산업계 동향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보다 실질적이고 차원높은 기회를 제공하고 조그만 시행착오를 감안하고 연구성과를 실제의 축산농가나 업체에 다시 도입 응용될 수 있도록 상호협동이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축산학도에게 전반적인 축산정책과 경영분야를 배울 수 있는 교과과목의 설치와 장차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체제와 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전공분야와 다른 방면으로 진출하는 학원 교육의 손실 방지와 기반을 다진 학생들에 의한 정책과 경영의 참여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구조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외국에만 의지해오던 우수한 품종의 도입에 대해 역교배등 유전학적 연구와 육종 연구를 통해 가능하며 영양학 분야와 가공 분야에 치우친 교과과목의 수정과 아울러 축산학도의 본연의 연구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절대적인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동물성 단백질 대상중에서 주로 쇠고기만 찾는 식생활의 기호도 대등한 영양가를 가지면서 값이 저렴한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나라 축산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해결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약 4,000 만수

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양제는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증가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양계업은 적은 자본으로 집약적 영농을 할 수 있고 부업 전업 기업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경영 성립이 가능하고 사료이용성이 높기 때문에 기호성 변형에 주력한다면 충분히 고도 산업화가 가능하다. 단지 자체의 증식율이 높고 분별없는 대량생산에 의한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의 폭이 크다는 점과 저장성 미약과 소비시장의 협소 및 종계의 수입의존도가 크기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육종연구에 대한 보조와 경영자의 합리적인 육계 경영 및 사양관리 기술과 도계의 산업적인 처리 기술면의 개선등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경제보조를 제공하여 하나의 생산단계로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원교육에서도 약간의 검토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여러가지 면이 경합되어 무엇을 더 주장하고 편애하기는 어렵지만 수의학 분야도 범주를 벗어난 가축의 질병과 예방 방역대책 등 수의축산과목의 필요성과 반주가축에 대한 교육의 약한점과 번식과 육종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의 부족과 졸업생에게 단순히 기업 소개로만 그치는 취직알선의 경우 업계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진도설정에 대해 교수와 기업가들의 노력이 모자라고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얽매어 취직문제에 치우친 편파적인 연구방향과 순수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교과과목의 강의와 아울러 농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업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 사이에서 혹은 교수와 혹은 농민이나 기업 경영자와의 좌담회같은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고 풍부한 연구실 설비와 실험기재에 대한 안목있는 기업가들의 투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연구실적에 따라 적극적인 도입 응용하여 합리적인 경영계획의 일환으로서 조목을 설정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다. 지금까지 서술해 온 사항들은 축산인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것들에 지나지 않지만 알면서도 하지 못했다는 방관의 자세에서 모르는 것도 알도록 노력하는 단순한 연구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내에 같은 과(科)학우들로 구성된 '축산발전연구회'라는 모임이 작년에 발족하였는데 과거 선배들도 축산업에 비해 여러형태의 모임을 이루었다가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는 순수 학술적인 면으로 치우쳐 자체 학생들에게 소의당한 이유도 있지만 불장난으로 보아넘기는 지식인들의 숭선수범적인 충고와 실질적인 도움의 미비점이 더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 정책이든 기업들의 경영문제이든 주어진 모든 문제는 근시안적인 결론을 만족으로 알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비책없는 과정의 일환으로 빚어진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의 비판이나 사회구조의 모순성과 비리를 타하기 전에 축산업을 하는, 축산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축산인 스스로가 자중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수행되어야 할 임무인 것이다. 결국, 장황하게도 축산인이면 누구나 알고있는 사항의 복사판이 되버려 예리하고 냉철한 직시를 바라고 원고를 부탁한 것에 대해 심한 힐책감을 느끼며 축산학을 배우는 후배가 이런 정도 밖의 원고를 쓸 수 없다는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교육의 지침을 현장에 나선 선배의 입장에서 지도 편달을 부탁하는 바입니다.